

기고

“생명을 지키는 첫 손길”

응급처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단 4분,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신고자)나 주변인의 응급처치 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우리 완도군처럼 섬 지역의 경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은 더욱 큼니다.

완도소방서의 구급활동 사례를 보면 섬 지역의 특성상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119 나르미션이나 해경선, 철부선 등을 이용하여 섬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신고자) 나 주변인의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4분의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완도소방서는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고령층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안심콜 등록제를 통해 독거노인과 중증질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맞춤형 처치와 이송시간 단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보건소·해경·지역응급의료기관·민간단체(119나르미션 등)와 함께 섬 지역 구급 이송협의체도 운영하여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응급처치는 결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민 여러분의 손길이 위급한 순간,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준비, 지금 이순간부터 함께 시작 해 주십시오. 완도소방서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 존중의 마중물, 더 안전한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외국과 문서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계약이 파기되면 배상 문제, 국가 신뢰성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자존심, 명소, 불신이 팽배하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교수



한·미 원전동맹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두뇌 플레이를 하게 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의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3,000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팜유(식물성 기름)로 대납하겠다는 뜬금없이 요구했다.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판매계약이다. 국영기업체와 사기업이든 계약 규칙이 있는데, 그곳에는 허술한 틀이 숨어있다. 그런데 리더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직면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산업 제품과 친환경 조선(造船), 글로벌 방산(防産)과 원자력(原子力), AI 산업이 수출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규정시행세칙'과 상대의 전략을 무엇인지 정교하게 파고 들어가 대응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계약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금년 1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공개되자 '꿀욕 계약'이라며 환경단체 등 논란이 거세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은 '한국형 원전 수출 시 1기당 6억 5,000달러(약 9,000억 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제공',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지역 핵연료 웨스팅하우스 100% 공급(남미 지역 50%)',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 등이고, 향후 50년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를 포기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사용료와 납품권을 제공한다는 불공정 내용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거래한 합의문을 보면 한

국이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 국가가 적시되어 있으며 북미 지역, 체코를 제외한 EU·영국·일본·우크라이나·중동·동남아·아프리카·남미 등으로 "로열티, 기자재, 보증"이라는 비용의 장벽과 '영업금지 구역'이라는 시장의 장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여당에서는 "매국적 불평등 계약"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대통령실도 대변인을 통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두산에너지나 티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답했고, 국내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한 수준"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기술 자립과 원전 기술 이력 것들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국민에게 제대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다"라고 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 시공 기술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원전 32기를 건설하였다. 미국의 원전 기술과 한국의 설계·시공 능력이 하나로 결합한다면 원전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원전 건설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은 상호 증속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해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동맹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때 세계는 꽃피는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음력 7월 5일)

Grid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